

스바냐 3:8의 이해와 번역 제안

이준혁*

1. 들어가는 말

스바냐 3:8의 번역 문제는 오랜 시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¹⁾ 이 구절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문 자체의 모호성과 다양한 문맥적 해석 가능성 때문이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לָכֵן הַכְּוֹנִי)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의 대상인 ‘너희’(2인칭, 복수)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명령 뒤에 등장하는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그들 위에’(עַלֵיהֶם) 쏟는다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 대상들은 서로 다

* University of the Holy Lan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2ullaonab@gmail.com.

1) A. Berlin,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5a (New York: Doubleday, 1994), 133;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215-216;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178-182;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ZAW 19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219-224; J. Gärtner, “Jerusalem—City of God for Israel and for the Nations in Zeph 3:8, 9-10, 11-13”, R. Albertz, J. D. Nogalski, and J. Wohrle, 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ethodological Foundations—Redactional Processes—Historical Insights*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270-282; B. Caldwell, ““Wait for Me”: Appreciating the Curious Juxtaposition of Zephaniah 3:8 and 9”, Ph.D. Dissertation (Concordia Seminary-Saint Louis, 2010), 1.

르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마소라 본문을 직역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תַּכְּוֹנֵנִי) ... 나의 불타는 분노를 그들 위에(עַל־לְבָבָם) 쏟아 놓기 위해 내가 민족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 (슥 3:8, 필자 역)

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기다리는 대상’은 2인칭, 복수이고 ‘분노와 진노를 쏟는 대상’은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슥 3:8, 『개역개정』)

그러나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기다리는 대상’과 ‘분노와 진노를 쏟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독자들이 이 두 대상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이방 국가들을 불러 모은다는 해석 역시 모호해진다. 즉, 이를 이방 국가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심판의 대상으로 이방 국가를 불러 모으는 도구로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스바냐 3:8a에서 ‘레아드(רֵאד)’에 관한 해석도 다양하다. 별게이트 역본을 따라 ‘라아드(lā‘ad)’로 읽어 ‘영원히’(forever)로 해석하는 경우, 마소라 본문을 따라 ‘전리품’(prey)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70인역(LXX)을 따라 ‘증인’(witness)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전리품’(prey)으로 해석할 경우, 여호와의 심판과 보상의 이미지가 강화되지만, ‘증인’(witness)으로 해석할 경우, 여호와의 공정한 심판과 법정 장면이 부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과 번역의 문제로 인해, 스바냐 3:8의 올바른 번역은 스바냐서 전체의 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스바냐서 전체에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본문

2.1. 스바냐 3:8에서 ‘너희’의 정체

스바냐 3:8은 ‘그러므로’(לְכֵן)로 시작한다. 보통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라켄(לָכֵן)’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근거 혹은 이유를 설명한 뒤에 하나님의 신적인 선포 혹은 명령을 소개할 때 사용된다.²⁾ 스바냐 3:8의 경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8a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별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라 전리품을 얻기 위해 내가 일어날 때까지’(לְכֵן חַכְמָתִי נְאֻמֵי יְהוָה לְיוֹם קוֹמִי לְעַד)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너희’는 누구인가? 이를 위해서 먼저 스바냐 3:1-8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스바냐 3:1-8

필자는 스바냐 3:1-8을 한 단락으로 분류한다. 스바냐 3:1은 ‘호이(ׁיִי)로 시작하기에 스바냐 2:13-15에 니스웨에 대한 심판과는 구분되어진다. 즉, 스바냐 3:1-8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이다.³⁾ 특이한 점은 이 단락에서 스바냐 3:1-5는 하나님이 3인칭으로 나오며, 스바냐 3:6-8은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미스(J. M. P. Smith)는 6절과 7절을 앞 절과 관계없는 떨어진 예언으로 간주한다.⁴⁾ 그러나 로버츠(J. J. M. Roberts)는 6절을 앞에 나온 예언(습 3:1-5)의 확장으로 본다. 그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6-7절은 1-5절의 연속으로 해석할

2) BDB, 486.

3) 습 3:1에서 심판의 대상인 도시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70인역(LXX)은 습 2:15를 습 3:1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페시타(Peshitta)에는 습 2:15 끝에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and he shall say)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측면만 본다면 습 3:1에 나오는 도시는 니스웨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습 3:1은 ‘호이(ׁיִי)로 시작하는 예언이기에 습 2:13-15에 나오는 예언 단락과는 다른 예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시를 니스웨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비록 도시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나 그 뒤에 나오는 습 3:2-5에 근거하여 이 도시가 예루살렘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훈, 계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습 3:2). 부정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도시 가운데 계시는 의로운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다(습 3:3-5). 자세한 내용은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58-59;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1을 보라.

4) J. M.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ICC, (Edinburgh: T. & T. Clark, 1911), 241.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8절은 6-7절을 기반으로 한 심판으로 본다.⁵⁾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의 범죄를 고발하고(1-5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타난다(6-8절). 이런 근거로 스바냐 3:1-8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호이(הוי)’와 더불어 세 개의 분사형이 사용되었다(습 3:1). 세 개의 분사형은 예루살렘의 상태를 잘 표현해준다. 첫째로, ‘모르아(מֹרְאָה)’의 형태는 성경에 스바냐 3:1에만 사용되었다. 로버츠는 이 단어의 뿌리가 ‘마라(מָרָה)’에서 온 칼, 여성, 능동분사에서 온 것으로 ‘반역하는 곳’(to rebel)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⁶⁾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고집스러운 거절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사 3:8; 30:9). 둘째로, ‘니그알라(נִגְאַלָה)’는 ‘가알(נִגַּל)’의 니팔, 여성, 능동분사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더러운 곳’(to defiled)으로 이해되어진다(사 59:3; 애 4:14).⁷⁾ 셋째로, ‘억압하는 성읍’(הַעֲרִיר הַיְזִיקָה)에서 ‘요나(יוֹנָה)’는 ‘야나(יָנָה)’의 칼, 여성, 능동분사이다. 스위니(M. A. Sweeney)는 세 개의 분사형이 스바냐 3:1-20의 큰 맥락 안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제안하였다. 즉, 스바냐 3:1의 세 개의 분사형 즉,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곳, 더러운 곳, 억압하는 도시로 묘사되지만, 이후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이미지(습 3:19-20)와의 연결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스바냐가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은 문학적인 연결표현으로 예루살렘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제안한다.⁸⁾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종교적, 사회윤리적인 측면의 부패가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더러운 곳은 제의적인 면에서 부정을 의미하며 억압이란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배층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הַכְרַתִּי גוֹיִם)로 시작한다. 로버츠는 앞 절에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을 끊어버렸다는 심판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여러 나라’(גוֹיִם)를 ‘그들의 나라’(their nation)로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로버츠의 견해를 따르면 심판의 대상이 지금까지 3인칭, 여성,

5)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0-211.

6) *Ibid.*, 211-212.

7) “נִגַּל”, *HALOT* 1, 169.

8)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59-160.

9) M. E. Széles, *Wrath and Mercy: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Habakkuk and Zephania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87), 100-101.

단수였는데 갑자기 3인칭, 남성, 복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마소라 본문을 따라 ‘여러 나라’(עַמִּים)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러 나라’(עַמִּים)에 대한 심판은 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인가? 여러 나라를 향한 심판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은 예루살렘을 돌이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¹⁰⁾ 스바냐 3:6-8은 5절에 나타난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바냐 3:6-8에 나타난 열방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권자, 통치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 회복으로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¹¹⁾ 이런 의미에서 스바냐 2:4-15에 나타난 열방 심판은 스바냐 3:6-7b와 연결되며 예루살렘에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¹²⁾ 스바냐 3:6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끊으셨다(הִכַּרְתִּי). 그래서 황폐해졌고(נִצְרָה), 사람이 없고(בְּלֵ-אִישׁ), 거주할 자가 없다(אֵין יוֹשֵׁב)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말했다’(אָמַרְתִּי)라고 과거로 강조하고 있다.¹³⁾ ‘그러면 내가 방문할 너의 거처를 끊지 않았을 것이다’(וְלֹא-יִכָּרֵת מְעוֹנָהּ כֹּל אֲשֶׁר-פָּקַדְתִּי עָלֶיהָ)라고 말씀하신다.¹⁴⁾ 여기서 스바냐 1장에서만 세 번 사용된(습 1:8, 9, 12) ‘내가 벌

10) J. Gärtner, “Jerusalem—City of God for Israel and for the Nations in Zeph 3:8, 9–10, 11–13”, 270.

11)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75.

12) J. Gärtner, “Jerusalem—City of God for Israel and for the Nations in Zeph 3:8, 9–10, 11–13”, 271.

13) 습 3:7은 “너는(2인칭, 여성, 단수)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3인칭, 여성, 단수) 방문했던 모든 곳, 그녀의(3인칭, 여성, 단수) 거처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2인칭, 여성, 단수와 3인칭, 여성, 단수가 혼합되어 나와 혼동을 일으킨다. 마소라 학자들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אֲנִי תִירָא אוֹתִי תִקְחִי מוֹסֵר)에서 너를 3인칭, 여성으로 바꾸어서 읽기를 권한다(מוֹסֵר אוֹתִי תִקְחִי מוֹסֵר). *BHS Apparatus*, 7, 1058.

14) 70인역에서는 ‘그녀의 거처’(מְעוֹנָהּ)를 ‘그녀의 눈으로부터’(From her eyes, מְעֵינֶיהָ)로 읽는다. 로버츠(J. J. M. Roberts)는 70인역을 따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내렸던 모든 벌이 그녀의 눈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And there will not be cut off from her eyes all the punishment that I brought upon her)로 번역한다. 로버츠는 앞 절의 심판이 열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5. 그러나 베를린(A. Berlin)의 지적처럼 ‘눈으로부터 자르다’(cut off from the eyes)라는 표현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그녀의 거처’(מְעוֹנָהּ)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본다면 70인역을 따르는 것보다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스위니(Sweeney)도 70인역보다 마소라 본문을 따르는데 그는 70인역을 따라가기에 텍스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A. Berlin,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32; M. A. Sweeney,

할 것이다’(תִּתְּנָה)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끊임없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 것이다(습 3:7b). 이제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습 3:5)의 심판을 예루살렘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2.3. 긍정적인 기다림? 부정적인 기다림?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명령인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לִּהְיוֹתֵי)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인 기다림인가? 부정적인 기다림인가?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이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그렇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한 문맥적 결정이다. 『개역개정』의 번역도 “별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그러나 ‘하카(הכה)’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14번 등장하는데 이 동사(הכה)는 심판보다 긍정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표현에 주로 사용되었다(사 30:18; 64:3; 함 2:3; 시 33:20; 106:13).¹⁶⁾ 또한 문맥적 결정을 이유로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7절에 등장하는 자들과 8a절에 등장하는 자들의 인칭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7c절에서 ‘끊임없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 자들’은 3인칭, 복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8a절에 ‘기다림의 대상’은 2인칭, 복수(הכה)이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인가?

로버츠는 스바냐 예언자가 스바냐 2:1-3에서 특정 그룹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촉구한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룹(습 3:8)은 앞서 나온 그룹(습 2:1-3)을 옆두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버츠는 스바냐 3:8에서 2인칭, 남성, 복수 형태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이 스바냐 2:3에 나오는 동일한 형태의 2인칭, 남성, 복

Zephaniah: A Commentary, 176.

15) 블라르딩거브로크(J. Vlaardingerbroek)는 습 3:7 다음의 “따라서”라는 단어가 “비극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을 소개한다고 주장한다. J. Vlaardingerbroek, *Zephaniah*, J. Vriend, trans., HCOT (Leuven, Belgium: Peeters, 1999), 184. 라이트(P. Wright)는 이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가져다줄 때를 기다려라”라고 의역한다. P. Wright, *Jonah, Micah,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SN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89.

16) C. Barth, “הכה”, *TDOT*, 4, 362; B. Caldwell, ““Wait for Me”: Appreciating the Curious Juxtaposition of Zephaniah 3:8 and 9”, Ph.D. Dissertation (Concordia Seminary-Saint Louis, 2010), 166. 흥미로운 점은 습 3:8a에 쓰인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הכה)는 표현과 이사야가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하여 심판 뒤에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הכה) 표현(사 8:17)이 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80.

수 형태로 등장하는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로버츠와 마찬가지로 하렌(M. A. Hahlen)과 햄(C. A. Ham)은 이 구절의 문법적 세부사항을 주목한다. 즉, 스바냐 3:8에서 남성, 복수, 명령형(חָבֵן)이 등장하면 독자들은 스바냐 2:1-3에서 유사한 명령형인 ‘모여라’(קוּשְׁוּ), ‘구하라’(בְּקָשׁוּ)가 등장했음을 주목한다는 것이다.¹⁸⁾ 더불어 벤 즈비(E. B. Zvi)는 스바냐 2:2에 표현된 ‘여호와와 그의 진노’(חֲרוֹן אַף־יְהוָה),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יּוֹם אַף־יְהוָה) 그리고 스바냐 2:3에 표현된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יּוֹם אַף־יְהוָה)이 스바냐 3:8에 나오는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אֵפִי וְכָל־חֲרוֹן אַפַּי)와 연결된다고 보았다.¹⁹⁾ 또한 그 심판 이후 스바냐 3:12-13에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하였고 그들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스바냐 2:3에 “혹시 … 숨김을 얻으리라”(אִוְלֵי תִסְתָּרֶנּוּ)는 희망적인 표현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²⁰⁾

스바냐 3:12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라는 동사(שָׂאֵר)를 통해 스바냐 3:13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등장한다.²¹⁾ 즉, 스바냐

17)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5.

18) M. A. Hahlen and C. A. Ham, *Minor Prophets Volume 2: Nahum-Malachi* (CPNC; Joplin, Mo.: College Press, 2006), 233.

19)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297.

20) 이 표현은 가능성이 없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가능성, 소망의 상황을 기대하는 표현이다. “אִוְלֵי”, HALOT 1, 21; 또한 이 표현은 신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윤리적인 행동이 유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e.g., 암 5:15). 자세한 내용은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147를 보라.

21) 많은 학자들은 스바냐서 전체에 ‘남은 자’와 관련하여 ‘유다족속의 남은 자’(습 2:7), ‘내 백성의 남은 자들’(습 2:9)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습 3:13에 스바냐서에 한번 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포로시기와 포로후기 자료에서 계속 사용되는데 그곳에서는 오직 유다 백성만이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하기 때문에(스 2:70)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 용어로서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제안한다. A. Berlin,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36-7; 그러나 스위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로후기 용어로 보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며, 이 견해는 요시아의 회복 계획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91-192를 보라. 헤이즈(C. B. Hays)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북왕국의 생존자들과도 연관되어 등장하기 때문에(미 2:12; 렘 6:9) 스위니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C. B. Hays, “Isa 24-27 and Zephaniah Amid the Terrors and Hopes of the Seventh Century: An Intertextual Analysis”, R. J. Bautch, J. Eck, and B. M. Zapff, eds., *Isaiah and the Twelve: Parallel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Vol. 527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144를 보라. 로버츠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습 3:13)는 북왕국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백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를 하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포로후기 첨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22를 보라. 더불어 벤 즈비(E. B. Zvi)도 ‘이스

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²²⁾ 그들은 스바냐 2:3에서 언급된 겸손한 자들이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²³⁾

따라서 스바냐 3:8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 그룹들은 스바냐 2:3, 3:12에 등장하는 ‘겸손한 자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판단된다. 그 근거를 정리하면 첫째, 스바냐 3:8에서 기다리는 대상인 2인칭, 복수는 스바냐 2:3에서 2인칭, 남성, 복수와 연결된다. 둘째, 스바냐 2:1-3과 스바냐 3:8에는 유사한 명령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다리다’(חכה) 동사는 하나님이 객체일 때 항상 긍정적인 함축을 지닌다는 것이다.

2.4. ‘레아드(לעד)’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과 그 의미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진술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 내가 일어날 때까지”(לְיָמַי קָמוּ לְעֵד)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인 겸손한 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다. 여기서 ‘레아드(לעד)’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별게이트 역본처럼 ‘라아드(lā‘ad)’로 읽어 ‘영원히’(forever)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둘째, 70인역을 따라 ‘레에드(lē‘ēd)’ 즉, ‘증인’(as a witness)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증인이 된다. 셋째,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레아드(lē‘ad)’ 즉, ‘전리품’, ‘먹이’라는 뜻으로 보는 경우이다.²⁴⁾ 대부분의 학자들은 70인역을 따라 ‘레에드(lē‘ēd)’ 즉, ‘증인’(as a witness)으로의 수정을 받아들인다.²⁵⁾ 그럼

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습 3:12의 곤고하고 가난한 자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반대편에 서있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념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234. 이런 견해들이 타당한 이유는 본문의 문맥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 남은 자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스바냐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포로 이후의 용어로 보기보다, 스바냐가 예루살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담은 용어로 판단한다. 스바냐와 요시아 시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희숙, “스바냐와 요시아 개혁 -요시아 개혁에 대한 예언적 관점-”,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75-93을 참고하라.

22) 유윤중, “12예언서 내 스바냐의 정경적 위치와 그 함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12.

23)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8-19; A. Berlin,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36; M. E. Széles, *Wrath and Mercy: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Habakkuk and Zephaniah*, 109;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149.

24) A. Berlin,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33.

25) 참조, D. H. Ryou, *Zephaniah'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A Synchronic and Diachronic*

도 스위니와 벤 즈비는 ‘레아드(רֵעַד)’를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리품’(prey)으로 해석한다.²⁶⁾ ‘전리품’으로 해석할 경우, 여호와가 심판을 내리고 악인들을 처벌하며 의로운 자들에게 전리품을 제공하는 이미지가 강화된다. 이는 스바냐 3장의 전체적인 주제인 여호와와 심판과 구원과 연결되며, 스바냐 3:9-10에서 여호와가 민족들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장면과도 연결된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심판을 통해 회복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 승리하며 전리품을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증인’으로 해석할 경우, 여호와가 심판자이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이 부각되며, 이는 여호와와 공정한 심판과 법정 장면을 나타낸다. 이 해석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패에 대한 경고와 연결되며, 스바냐 3:1-7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상세히 묘사된 후 스바냐 3:8에서 여호와가 증인으로서 이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의 부패가 공정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한다. 즉, ‘전리품’(prey) 해석은 여호와와 심판과 보상을, ‘증인’(as a witness) 해석은 여호와와 공정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⁷⁾ 이런 맥락에서 스바냐 3:6-7에 나오는 열방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한 교육적 기능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공정함을 더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레에드(lē‘ēd)’ 즉, ‘증인’(as a witness)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필자는 ‘레아드(רֵעַד)’를 ‘증거’(for a testimony)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²⁸⁾ 여기서 말하는 ‘증거’(for a testimony)는 사물보다 사건(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일어나는 일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스바냐 3:6-7이 증거(사건)가 되어서 8절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다.

Study of Zephaniah 2:1—3:8,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3 (Leiden: Brill, 1995), 67–68; M. H. Floyd, *Minor Prophets, part 2*, FOTL XX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0), 233;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09–210; R.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Tex.: Word Books, 1984), 139; J. M.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247, 253.

26)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81;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220-223.

27) B. Caldwell, ““Wait for Me”: Appreciating the Curious Juxtaposition of Zephaniah 3:8 and 9”, 163-164, 177-179.

28) 눅 21:12-13에서 비슷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12절에 적힌 사건들이 13절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눅 21:13에서는 습 3:8에 기록된 ‘에이스 말티리온(εἰς μαρτύριο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μαρτύριον”, BDAG, 619.

따라서 ‘증인’(as a witness) 혹은 ‘증거’(for a testimony)’로 번역할 수 있다.

2.5.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

8절 하반부에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두 개의 ‘키(כִּי)’절이 등장한다.

첫 번째 ‘키(כִּי)’절을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이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כִּי מִשְׁפָּטִי לְאַסֹּף גּוֹיִם לְקַבְּצֵי מַמְלָכוֹת לְשַׁפֵּד עַל־הֶם וְעָמִי כָּל הָרִוּן אֲפִי)이다. 『개역개정』은 분노와 진노를 쏟아놓는 대상인 ‘그들’에 대한 번역이 빠져있다. 더욱이 8a절에 ‘기다림의 대상’은 2인칭, 복수(חֲבוּ)이지만 8b절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는 대상’은 3인칭, 복수(עַל־הֶם)로 사용되었다. 즉, ‘기다림의 대상 그룹’과 ‘진노의 대상 그룹’은 다르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상 그룹은 누구인가?

이 구절에서 ‘그들 위에’(עַל־הֶם)라는 단어의 선행사가 문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은 모호하다.

일부 해석자들은 3인칭, 남성, 복수, 대명사 접미사 ‘헴(םהּ)’을 2인칭, 남성, 복수, 대명사 접미사 ‘켄(םכּ)’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⁹⁾ 왜냐하면 앞에 나온 기다림의 대상이 2인칭, 복수(חֲבוּ־לִי)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이 부분은 8절 하반부에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상충되기 때문이다.³⁰⁾

개르트너(J. Gärtner)는 ‘그들’로 지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룹을 세 개의 그룹으로 제안했다.³¹⁾ 첫째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다. 둘째는 여러 나라들, 열방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는 열방과 예루살렘 모두로 보는 것이다.

테일러(C. T. Taylor)에 의하면 기다리는 대상은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들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가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민족과 열방에 쏟아질 보편적인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고 명령받았다고 이해를 하였다.³²⁾ 즉,

29) W. Rudolph, *Micha-Nahum-Habakuk-Zephanja*, KAT XIII/3, (Gütersloh: Mohn, 1975), 287, 290.

30)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81.

31) J. Gärtner, “Jerusalem—City of God for Israel and for the Nations in Zeph 3:8, 9–10, 11–13”, 271-272.

이 구절을 열방을 향한 심판으로 이해를 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분노와 진노의 대상을 열방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물론 이 구절에서 분노와 진노를 쏟기 위해 열방을 소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אֵלֶּיךָ)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기 위해 열방을 소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들’(אֵלֶּיךָ)은 누구인가? 그들은 스바냐 3:1-7에 등장하는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스바냐 3:7에 3인칭, 복수로 등장하는 ‘그들’ 즉,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열방으로만 한정시킨다면 스바냐 3:1-7에 언급된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을 향한 심판은 등장하지 않고 습 3:9이하부터 바로 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등장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그들 위에’(עַלֵּיהֶם)의 선행사를 ‘여러 나라와 왕국’으로 보는 것보다 스바냐 3:7에 등장하는 ‘심판 받을 대상’인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으로 보는 것이다.³³⁾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열방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들’(אֵלֶּיךָ)이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이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열방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더욱이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사상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종종 사용되어져 왔다(사 10:5-6; 렘 25:8-9; 겔 21:19-23; 함 1:5-6).

8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키(כִּי)’절을 보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כִּי בָאֵשׁ קִנְיָתִי תִאָּכַל כָּל־הָאָרֶץ)가 등장한다. 로버츠는 이 부분도 앞과 동일하게 심판받을 대상을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으로 한정시킨다. 더 나아가 그는 스바냐 3:9에 나오는 회복에 관해서도 그 회복의 대상이 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한정한다. 그 스스로도 예루살렘으로 한정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스바냐 3장에서 열방에 대한 죄와 부패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열방을 제외한다.³⁴⁾ 그러나 9절에 등장하는 “열방”(עַמִּים)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외국 나라를 의미한다.³⁵⁾ 즉, 로버츠의 견해를 따르기는 어렵다.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을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 그리고 열방으로 함께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³⁶⁾ 스바냐 3:1-7의 전체 요점을 열방들의 죄악처럼 예루살렘도 죄악으

32) C. T. Taylor, “The Book of Zephaniah”, *IB* 6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1030.

33)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5-216.

34) *Ibid.*, 216-217.

35) B. Caldwell, ““Wait for Me”: Appreciating the Curious Juxtaposition of Zephaniah 3:8 and 9”, 204.

로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으나 8절의 두 ‘키(כִּי)’절의 대상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된다. 즉, 첫 번째 ‘키(כִּי)’절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는 대상은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키(כִּי)’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열방이다.

2.6. 스바냐 3:8이 가지는 기능: 심판과 회복

스바냐 3:8은 예루살렘의 겸손한 자들(습 2:3)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기다림의 명령과 더불어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바냐 3:8에 쓰인 ‘그러므로’(לְכֵן)는 단순히 앞의 문맥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 2:3-3:7 전체와 연결되어 진다. 스바냐 2:3의 남성, 복수, 명령과 스바냐 3:8의 “나를 기다리라”(חַכְמוּ־לִי)의 남성, 복수, 명령은 상응한다. 스바냐 2:3은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찾으며 구하라고 명령하고 스바냐 2:4-3:7까지는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한다. 스바냐 2:4에 등장하는 ‘키(כִּי)’는 스바냐 3:8 ‘라켄(לְכֵן)’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전자는 명령어 뒤에 이유를 소개하고 후자는 이전에 주어진 이유를 참고하여 두 번째 명령을 내린다.³⁷⁾ 이런 맥락은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라켄(לְכֵן)’의 역할은 스바냐서에 나타난 심판과 회복이라는 맥락과도 잘 어울린다.

이 구절에서 열방을 모으기 위해 사용된 동사인, ‘모으다’(קָבַץ)와 ‘소집하다’(קָבַץ) 동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소집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³⁸⁾ 하나님의 심판, 전투, 파괴를 위해 종종 사용되는 동사들이지만,

36) 대표적인 학자로는 헤플린(Heflin), 바커(Barker), 베일리(Bailey)가 있다. J. N. B. Heflin,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Bible Study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Lamplighter Books, 1985), 148; K. Barker and W.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9), 484.

37) B. Caldwell, ““Wait for Me”: Appreciating the Curious Juxtaposition of Zephaniah 3:8 and 9”, 164-165.

38) ‘모으다’(קָבַץ)와 ‘소집하다’(קָבַץ)가 함께 쓰인 경우(창 29:22; 출 3:16; 4:29; 민 11:16, 24; 21:16; 수 2:18; 삼상 5:8, 11; 왕하 23:1; 율 2:16; 합 2:5; 겔 11:17). 이 용어들은 또한 농산물의 수확, 수집 또는 집합과 관련하여 사용(קָבַץ, 출 23:10, 16; 레 23:39; 25:3, 20; 신 11:14; 16:13; 28:38; 사 17:5; 렘 40:10, 12; 욥 39:12; 시 39:7; קָבַץ, 창 41:35, 48) 및 기타 물질적 이득, 예를 들어 전리품, 돈 등(קָבַץ, 왕하 22:24; 대하 24:11; קָבַץ, 신 13:17; 대하 24:5; 겔 16:31). 전투를 위해 소집하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다(קָבַץ, 민 21:23; 삿 11:20; 삼상 17:1; 삼하 10:17; 12:29; 숙 14:2; קָבַץ, 삿 12:4; 삼상 7:5; 28:1; 29:1; 삼하 2:30; 왕상 20:1; 왕하 6:24). 또한 파괴(קָבַץ, 삼상 15:6; 겔 34:29; 렘 8:13), 또는 여호와의 심판(קָבַץ, 겔 22:20)으로도 사용된다.

흘어지거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을 때도 사용된다(קָבַץ, 미 2:12; 4:6; 렘 31:10; 숙 10:8; 사 54:7; 56:8; 신 30:3, 4; 렘 23:3; 29:14; 31:8; אָסַף 와 함께 쓰일 때, 미 2:12; 4:6; 사 11:12). 더욱이 스바냐 3:18-19에서 ‘모으다’(אָסַף)와 ‘소집하다’(קָבַץ) 동사가 예루살렘/이스라엘의 회복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다. 따라서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모으다’(אָסַף)와 ‘소집하다’(קָבַץ)의 역할은 심판과 회복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³⁹⁾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두 개의 ‘키(כִּי)’절인 예루살렘과 열방을 향한 심판에서 사용된 단어가 스바냐 1:2-3과 스바냐 1:18의 단어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⁴⁰⁾ 스바냐 1:2-3에서는 ‘아사프(אָסַף)’가 2절에 두 번, 3절에 한 번 사용되며 그 대상은 “땅 위의 모든 것”(כָּל מַעַל פְּנֵי הָאָרֶזְמָה)이다. 스바냐 1:18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분노의 날”(בְּיּוֹם עֲבָרַת יְהוָה)은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כָּל חַרְוֹן אַפִּי)와 의미가 유사하고, 또한 스바냐 1:18에 “온 땅이 여호와와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בְּאֵשׁ קִנְיָתוֹ תֹאכַל כָּל-הָאָרֶץ)은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בְּאֵשׁ קִנְיָתִי תֹאכַל כָּל-הָאָרֶץ)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맥락은 스바냐 1장에 드러난 핵심 모티프인 ‘여호와와 날’이 스바냐 3:8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⁴¹⁾ 특히, 스바냐 1:7-2:3에서 “여호와와 분노의 날”, “여호와와 날”이 등장한다. 즉, “여호와와 희생의 날”(습 1:8),

39)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81.

40) M. H. Floyd, *Minor Prophets, part 2*, 234.

41)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와 날’ 주제가 많이 등장한다. ‘여호와와 날’은 아모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암 5:17-20).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아모스 이전에도 여호와와 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본다. ‘여호와와 날’ 기원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일치된 견해는 없다. ‘여호와와 날’의 개념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많이 알려진 신학적 개념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여호와와 날’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적들의 억압에서 건져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의 날,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수치의 날로 여겼다. 그러나 아모스는 ‘여호와와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암 5:17-20). 아모스는 하나님의 ‘현현’ 전승과 ‘거룩한 전쟁’ 전승을 거꾸로 이용하여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사야도 ‘만군의 여호와와 날’을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높은 것을 꺾어버리는 날로 묘사한다(사 2:12, 13-15, 17). 이사야도 아모스처럼 ‘여호와와 날’을 구원이 아닌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도 아모스와 이사야처럼 여호와와 ‘나타나심’과 ‘거룩한 전쟁’ 전승을 거꾸로 이용하여 심판을 선언하였다. 스바냐에 나타난 ‘여호와와 날’은 남유다뿐 아니라 열방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언한 것으로 등장한다(습 2:4-15). M. U. Udoekpo, *Re-thinking the Day of YHWH and Restoration of Fortunes in the Prophet Zephania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1:14-18; 3:14-20* (Bern: Peter Lang, 2010), 43-77; S. D. Snyman, “In search of tradition material in Zephaniah 1:7-13”, *AcT* (2000), 113-14;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177; 이동수, “야훼의 날: 스바냐 1:7-18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 『장신논단』 17 (2001. 12), 25-29.

“그날에”(슥 1:9-10, 15), “그때에”(슥 1:12), “여호와와 의 큰 날”(슥 1:14), “여호와와 의 분노의 날”(슥 1:18)로 나타난다.⁴²⁾ 이 날은 심판의 날이다. 동시에 이 날은 회복의 날이 된다. 스바냐 3:8을 기점으로 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내용이 등장한다(슥 3:9-20). 스바냐 3:9-10에 나오는 구원의 대상은 열방이다.⁴³⁾ 스바냐 3:11이하에는 예루살렘의 구원, 회복이 등장한다. 스바냐 3:11은 “그날에”(מַיּוֹם)로 시작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날”은 스바냐 3:8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날’과 관련이 있다.⁴⁴⁾

따라서 스바냐 3:8은 스바냐서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여호와와 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바냐 3:8은 스바냐서 전체의 메시지를 반영하며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

42) O. P. Robertson,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NICOT,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0), 269.

43) 특히,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크게 두 견해로 나뉘는데 첫 번째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는 로버츠이다. 로버츠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흠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스바냐 당시에는 에디오피아까지 간 유대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전 586년 직전과 직후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문장을 후대삼입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는 켈리스(M. E. Széles)이다. 그는 땅 끝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들은 모든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217-8; M. E. Széles, *Wrath and Mercy: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Habakkuk and Zephaniah*, 108을 참고하라.

44) 슥 3:11에 교만하고 오만한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위한 요소들, 이를테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עֲלֵי יְבִיאוֹתַי), ‘제거할 것이다’(אָסִיר), ‘거만하다’(גָּבַח)와 같은 단어들은 이사야 전승과 매우 흡사하다. 먼저 ‘제거할 것이다’(אָסִיר)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악하고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여 정화하기 위한 의도로 사 1:21-26의 예언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사 1:25).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עֲלֵי יְבִיאוֹתַי)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사야와 스바냐 밖에 나오지 않는다(사 13:3; 슥 3:11). 사 13:3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과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 24:8에 ‘기뻐하는 자들’(עֲלֵי יוֹם)은 하나님에 의해 벌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사 32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 회복의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 32:13의 ‘희락의 성읍’(עִירֵי קִיּוֹן)이란 표현은 슥 3:11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거만하다’(גָּבַח)란 용어도 이사야에 처벌받을 만한 사람이나 행동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사 2:11, 15, 17; 3:16; 5:15, 16; 7:11; 10:33; 30:25). 사 2:6-21은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사 2:6-21에 나타난 그 날은 슥 3:11-13의 그 날, 즉 ‘여호와와 의 날’이다. M.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187-188.

구하고 『개역개정』을 살펴보면 독자들에게 심판이라는 주제만 두드러지게 만드는 아쉬움이 있다.

앞서, 스바냐 3:8에 등장하는 ‘너희’(2인칭, 복수),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 그룹은 겸손한 자들(슌 2:3),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슌 3:12)이다.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일어날 때까지다. 여기서 ‘레아드(לעד)’를 ‘증인’(as a witness) 혹은 ‘증거’(for a testimony)로 해석하는 것은 6-7절에 나오는 열방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한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공정함을 더 강조하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질투의 불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들 그리고 열방이다. 이런 관점으로 번역을 한다면 스바냐 3:8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그 날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들(슌 2:3)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준다. 즉, 이 구절은 여호와와 심판을 선언하며, 부패한 예루살렘과 그 지도층들 그리고 열방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겸손한 자들(슌 2:3),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슌 3:12)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여 심판 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심판의 시기를 지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스바냐 3:8은 스바냐서의 중요한 모티프인 여호와와 날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준다. 따라서 스바냐 3:8을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스바냐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바냐 3:8을 아래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일어설 날까지(증거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라. 나의 불타는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놓기 위해 내가 민족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슌 3:8)

<주제어>(Keywords)

스바냐 3:8, 여호와의 날, 심판과 회복, 겸손한 자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Zephaniah 3:8, The Day of the LORD, Judgment and Restoration, The Humble, A poor and humble folk.

(투고 일자: 2024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4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9월 5일)

<참고문헌>(References)

- 배희숙, “스바냐와 요시아 개혁 -요시아 개혁에 대한 예언적 관점-”,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75-93.
- 유윤중, “12예언서 내 스바냐의 정경적 위치와 그 함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99-124.
- 이동수, “야훼의 날: 스바냐 1:7-18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 「장신논단」 17 (2001. 12), 10-29.
- Barker, K. L. and Bailey, W.,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9.
- Berlin, A.,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5a, New York: Doubleday, 1994.
- Caldwell, B., ““Wait for Me”: Appreciating the Curious Juxtaposition of Zephaniah 3:8 and 9”, Ph.D. Dissertation, Concordia Seminary-Saint Louis, 2010.
- Floyd, M. H., *Minor Prophets, part 2*, FOTL XX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0.
- Gärtner, J., “Jerusalem—City of God for Israel and for the Nations in Zeph 3:8, 9–10, 11–13”, R. Albertz, J. D. Nogalski, and J. Wöhrle, 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ethodological Foundations-Redactional Processes-Historical Insights*,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269-283.
- Hahlen, M. A. and Ham, C. A., *Minor Prophets Volume 2: Nahum-Malachi*, The College Press NIV Commentary, Joplin, Mo.: College Press, 2006.
- Hays, C. B., “Isa 24–27 and Zephaniah Amid the Terrors and Hopes of the Seventh Century: An Intertextual Analysis”, R. J. Bautch, J. Eck, and B. M. Zapff, eds., *Isaiah and the Twelve: Parallel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Vol. 527,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131-155.
- Heflin, J. N. B.,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Bible Study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Lamplighter Books, 1985.
- Roberts, J. J. M.,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Robertson, O. P.,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Rudolph, W., *Micha-Nahum-Habakkuk-Zephania*, KAT XIII/3, Gütersloh: Mohn,

1975.

- Ryou, D. H., *Zephaniah'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A Synchronic and Diachronic Study of Zephaniah 2:1-3:8*,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3, Leiden: Brill, 1995.
- Smith, J. M. P.,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ICC, Edinburgh: T. & T. Clark, 1911.
- Smith, R. L., *Micah-Malachi*, WBC 32, Waco, Tex.: Word Books, 1984.
- Snyman, S. D., "In search of tradition material in Zephaniah 1:7-13", *AcT* (2000), 111-121.
- Sweeney, M. A., *Zephan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Széles, M. E., *Wrath and Mercy: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Habakkuk and Zephania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87.
- Taylor, C. T., "The Book of Zephaniah", G. A. Butterick, et al., eds., *IB* 6,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1007-1034.
- Udoekpo, M. U., *Re-thinking the Day of YHWH and Restoration of Fortunes in the Prophet Zephania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1:14-18; 3:14-20*, Bern: Peter Lang, 2010.
- Vlaardingerbroek, J., *Zephaniah*, J. Vriend, trans., HCOT, Leuven, Belgium: Peeters, 1999.
- Wright, P., *Jonah, Micah,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SN,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 Zvi, E. B.,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ZAW 19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Abstract>

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Proposal for Zephaniah 3:8

Joon-Hyuk Lee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lation issues surrounding Zephaniah 3:8, a verse that has been the topic of long-standing debate among scholars. The verse is challenging to a complexity of elements and ambiguity of context. It begins with the command, “Therefore wait for me,” but it is unclear who both the second-person plural ‘you’ and the third-person plural ‘them’ refers to in the phrase “pour out my wrath upon them.” I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s of the command to ‘wait’ (directed at the second-person plural) and the objects of ‘God’s wrath’ (third-person plural) is not clearly understood, it can lead to confusion in interpretation. For example, without clear differentiation, it becomes ambiguous whether the nations are being summoned for judgment or as instruments of judgment. Addition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ě‘ad (לעד)’ varies, with possibilities including ‘forever’, ‘prey’, or ‘witness’. These differenc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overall theological message of Zephaniah, thereby making making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is verse essential for clearly conveying the themes of judgment and restor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mmand in Zephaniah 3:8 to “wait for me” reflects a positive anticipation, identifying the subjects as the humble and poor people mentioned in Zephaniah 2:3 and 3:12. These individuals are to wait until God rises as a witness. Interpreting ‘lě‘ad (לעד)’ as ‘witness’ or ‘testimony’ takes into account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judgment on the nations toward Jerusalem, emphasizing God’s justice and reinforcing the message of judgment and repentance. The study also identifies the subjects of ‘God’s wrath and anger’ as the corrupt Jerusalem, its leaders, and the nations. In this context, Zephaniah 3:8 serves as a pivotal turning point in the book.

The verse emphasizes the judgmental aspect of the Day of the Lord while also offering hope and salvation to those who wait for that da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Zephaniah 3:8 provides hope to those who humbly wait for God

while warning Jerusalem's corrupt leaders and the nations of impending judgment.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Zephaniah, this verse plays a key role in linking the dual themes of judgment and restoration centered on the Day of the Lord.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translation of Zephaniah 3:8 should reflect these dual themes of judgment and restoration, demonstrating tha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is verse is vital for grasping the overall message of the book of Zephaniah.